

올여름 찾아가고 싶은 섬 '가우도'



가우도 돌레길에 조성된 새하얀 목수국 화단

강진군의 가우도가 코로나19로 지친 일상을 살아가는 많은 이들에게 힐링 여행지로 각광받고 있다. 가우도는 아름다운 강진만 풍경과 더불어 가족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거리 또한 풍부하다. 지난 6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0년 휴가철 찾아가고 싶은 33섬' 중 체험의 섬으로 선

정되기도 했다. 망호리와 저두리에 각각 위치한 출렁다리를 지나 가우도에 접어들면 물살을 가르며 달리는 제트보트와 1천미터 하늘길을 가로지르는 쥘트랙이 관광객을 맞이한다. 청자모형 전망대에서 새처럼 날아오르는 쥘트랙은 와이어 하나에 몸을 의지해 바다 위를 빠르게 활강하는 짜릿함을 선사

강진군, 행안부 발표 33섬 중 체험의 섬 선정 출렁다리·쥘트랙·복합 낚시공원 등 다양

한다. 지난 6월 개장한 가우도 복합 낚시공원 또한 수려한 자연경관 속에서 감성돔 등 다양한 어종을 잡는 재미를 느낄 수 있다. 낚시 초보자를 위한 현장 낚시 지도와 낚시 장비 대여, 미끼 판매 등 편의를 제공한다. 낚시공원을 지나 마을 안길을 따라 걸으면 산과 바다를 아우르는 280㎡ 넓이의 해상 전망데크가 자리 잡고 있으며, 추가로 조성된 계단을 내려가면 가우도의 바다를 더욱 가까이서 체험할 수 있다. 강진군은 최근 가우도 돌레길에 새하얀 목수국 화단을 조성하

여 보는 이로 하여금 즐거움을 선사하는 한편 대나무숲길, 후박나무숲길, 숲속 산책로를 추가 조성해 자연 속 힐링과 여유로움을 한껏 느낄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해가 긴 여름밤을 즐길 수 있도록 야간 조명이 설치돼 있어 아름다운 해안 산책로를 즐기기도 안성맞춤이다. 이승욱 강진군수는 "찾아가고 싶은 섬 가우도 여행을 통해 많은 분들이 코로나19로 힘든 시기 자연 속에서 치유와 재충전의 시간을 갖고 다시 활력을 되찾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강진=김영일 기자

이동진 진도군수, 소통 행정 강화

방역 수칙 준수하면서 마을 방문...건의사항 청취

진도군이 민선 7기 반환점을 넘어 3년차를 맞아 주민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행정을 실천한다. 이동진 진도군수는 지난 12일과 13일 양일동안 의신면 송정마을, 임회면 상판마을에서 열린 민생현장 탐방에 직접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주민과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 군수는 마을 주민과 대화를 통해 군정 발전방안, 건의사항 등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했으며, 주민들의 고충사항을 파악했다.

군은 민생 현장 탐방에서 접수된 각종 고충들과 건의 사항은 해당 부서에 통보해 빠른 시일 내에 후속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며, 처리가 완료되면 해당 주민에게 결과를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코로나19 감염에 대비해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수칙인 마스크 착용, 손 소독 등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앞으로도 마을주민·사회단체와도 대화하는 등 소그름 소통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진도군 행정과 관계자는 "민생 현장 탐방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중단된 대민 현장 행정을 다시 시작하고 주민과 소통하기 위해 마련한 시간이다"며 "앞으로도

군정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마을, 군정 발전을 선도하는 사회단체와 사업장을 직접 찾아가 신뢰와 소통 행정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진도=조상용 기자

장흥군, 코로나19 혈액 수급 극복 '헌혈' 동참

장흥군은 지난 12일 군청 앞 헌혈버스와 보건소 대회의실에서 '사랑실천 생명나눔 헌혈운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혈액원과 함께 진행한 이번 헌혈은 코

로나19 감염증 장기화로 헌혈자가 급격히 감소하여 혈액의 안정적 수급과 지역내 헌혈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헌혈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진행되었으며, 발

체크와 손소독을 철저히 하고 헌혈 중에도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코로나19 감염증 예방수칙 준수에도 헌혈 장려 운동으로 군정 직원과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혈

액원이 지원한 이동 헌혈 버스 46명을 포함하여 총 100여명이 헌혈했다. 장흥군 관계자는 "이번 헌혈이 코로나19에 따른 국가적 혈액 수급난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헌혈 장려 운동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생명을 나누는 일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완도군-세계한인무역협회, 글로벌 협력

1월 해양치유산업 설명회 참석 이후 두 번째 완도 방문

완도군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여 완도 수산물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글로벌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확대하고자 재외동포 경제인 단체인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회장 하용화) 임원진을 초청하여 간담회 등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추진됐으며, 글로벌 교류 협력 간담회 개최와 전복과 광어, 해조류 등 완도 수산물을 홍보하고, 완도군 농공단지 에 소재한 수출 기업을 방문했다. 완도군과 월드옥타는 지난 1월 완도군 원네스리조트에서 개최된 '완도군 해양치유산업 투자 유치 설명회'를 통해 완도군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와 군 소재 기업 해외 진출을 위해 적극 협력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 교류협력 간담회에서는 신우철 완도군수가 완도의 깨끗한 자연환경과 해양, 문화, 관광 자원 등을

소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의 100대 국정 과제이자 우리나라 3대 미래 산업인 해양치유산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68개국, 141개 지회에 7,000여 명의 월드옥타 회원들에게 2021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홍보와 완도군 수출상담회 참가를 제안했다. 14일, 농공단지를 찾은 월드옥타 임원진은 완도 수산물 수출기업 3곳(이하 다시마전복수산물영어조합법인, 흥일식품, 바다항기)을 차례로 방문했다. 각 기업별 주력 제품을 확인하고, 선진화된 제조 공정과 시설 설비 등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완도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글로벌 인적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이러한 노력이 수출로 이어져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완도=김광수 기자

해남공룡박물관 해바라기 물결 '장관'

해남공룡박물관이 노란 해바라기 물결로 가득했다. 해바라기 단지는 박물관 야외공원 유휴지 10,000㎡에 조성돼 박물관을 찾는 관람객들의 새로운 명소가 되고 있다. 올해는 긴 장마로 인해 대부분 해바라기 꽃단지의 작황이 좋지 않은 가운데 공룡박물관의 해바라기는 한여름을 맞아 활짝 꽃을 피어 장관을 이루고 있다. 해바라기 꽃은 8월말까지 절정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2007년 개관한 해남공룡박물관

은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공룡테마박물관이다. 박물관 내부는 아시아 최초로 알로사우르스 진품 화석을 공개하여 상설 전시하고 있으며, 공룡 골격 45점을 비롯한 500여점의 다양한 화석들을 만나볼 수 있다.





함평천지농특산물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함평천지 농특산품을 만나보세요.

함평 로컬푸드 직매장 Tel 061-324-8331









